

# 잇단 국제 레포트대회 들뜬 목포

### 다음달 4~7일 200명 참가 요트레이스

### 19~21일 30국 참가 클라이밍 월드컵

세계최고 수준의 클라이밍(dim-bing) 선수와 프로 세일러(sailor)들이 참가하는 굿직한 레포트 대회가 다음달 목포에서 잇따라 열린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제주 간 155km 바닷길을 잇는 '국제 요트레이스'(10월 4~7일)에 이어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10월 19~21일)가 각각 목포에서 개최된다.

◇국제 요트 레이스= '2012 전남~제주 국제 요트레이스'는 목포항의 '목포 요트 마리나'에서 출발해 총 155km를 달려 제주항의 '도두 마리나'에 도착하는 대장정이다.

특히 10월 4일에는 박준영 전남지사과 우민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서 목포대교까지 2시간여 동안 요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미순 세한대 산학협력단장은 "천혜의 해양레저 여건을 갖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권역을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며 "전남~제주 국제 요트레이스가 지자체간 특성화 사업 연계를 통한 통합 발전 모델의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30여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회가 거듭될수록 요트 동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국제 스포츠클라이밍 연맹이 주최하는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부주 근린공원내 목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이밍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유럽과 미주 지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라운드 형식으로 순위를 정하는 국제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30개국에서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난이도'와 '남녀 속도' 부문에서 기량을 겨루며 마지막 날인 21일 세계 최고의 '스피어더맨'을 뽑게 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축산보·승촌보서 전통놀이 한마당 K-water 전남본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영산강 축산보와 영산강문화관(승촌보)에서 추석맞이 강변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연다.

주요 행사로는 전통놀이(널뛰기·고리던지기·제기차기·팽이치기·웃놀이)를 비롯해 달맞이 소원빌기, 전통탈 만들기, 즉석 가족사진 찍기 등이 마련된다.

특히 영산강문화관 주변의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제2의 고향인 한국의 명절을 경험하고, 정을 나누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추석인 30일에는 대형 방패연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연을 날리고, 사물놀이와 농악놀이 등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신승은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맞이 한마당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겨운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전통놀이도 즐기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태풍 할린 벼 세우기

구례군 공무원들이 최근 산동면 내온마을 들녘에서 태풍 '산바'로 쓰러진 벼를 세워 묶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구례지역 18ha의 농경지가 도복피해를 입었다. <구례군 제공>

##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 내달 5~7일 판소리·고수 전국대회

지리산과 섬진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동편제의 대항연 '2012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가 오는 10월 5~7일 구례군 서시현 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소리꾼들의 대응문인 '제16회 전국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첫날인 10월 5일에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구례 황제출풍류와 잔수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호남 여성판국 공연

이 펼쳐진다. 또 조상현·성창순·이난초·김영자·박정선 명창들의 동편제 판소리와 대금의 이생강, 차세대 소리꾼 조선하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6일에는 송순섭 명창과 제자들이 '적벽가' 공연을 펼치고, 심정전을 해학적으로 구성한 '행과전'이 무대에 올려진다. 또한 판소리 고수대회 본선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구례 구전민

요 부르기 대회를 시작으로 권원태 명인의 남사당 줄타기 공연, 동편제 판소리 종가인 송만갑 가문의 판소리와 제자들의 판소리를 복원해 발표하는 '동편제 판소리 복원발표회', 강정숙 가야금 명인과 제자들의 가야금병창과 산조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폐막 공연으로는 '동편제 짧은 소리'는 김형석·이영태 명창의 판소리와 이승희의 살풀이 등을 선보인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여수 사회적기업 '송정 인터스트리' 신문·복사용지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지정 받아

### 커튼 등 이어 공공기관 우선납품

여수지역 장애인 복지를 선도해 온 사회적기업인 동행의 '송정 인터스트리'(대표 김영화·사진)가 커튼·블라인드·롤 스크린·버티컬에 이어 중질지·신문용지·복사용지류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송정인터스트리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농업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따라 송정 인터스트리에서 생산된 복사용지류와 중질지·신문용지·블라인드·커튼·버티컬 등 제품들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2월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인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인 동행의 송정 인터스트리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일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송정 인터스트리의 주요 생산품은 우수품질로 인증받아 복사용지와 중질지, 신문용지, 친환경용지(A4·A3·B4), 롤 스크린, 블라인드, 커튼, 무대 막, 병원커튼, 버티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김영화 대표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춰 독특한 아이템과 과감한 마케팅으로



일반기업들의 제품과 승부해 나가야 할 시대"며 "최고의 품질로 비장애인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품 판매수의 전액이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이는 만큼 시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힘 모으자"

### 조충훈 순천시장·김충석 여수시장·이성용 광양시장 협력 다짐

전남 동부권 3개도시 시장들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등 지역현안 등을 중심으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김충석 여수시장, 이성용 광양시장은 26일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4월 열리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날 김충석 여수시장과 이성용 광양시장은 정원박람회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양 시에서 15명씩 자문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 여수시와 광양시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원할 경우 공무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앞으로 3개 도시 시장은 3시장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오는 12월에는 여수시에서, 내년에는 광양에서



각각 회동하기로 했다.

3개 도시는 민선 3기 당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전남 영산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남도영산위원회'를 공동 투자해 성립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오는 12월에는 여수시에서, 내년에는 광양에서

씩하기로 했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 일원 152만㎡에 조성된 박람회장에서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김은종기자 jyj@

# 仲秋佳節

설레는 한가위 고향 길

## 남원농특산품이 기쁨을 함께합니다








남원 1박2일